

2008년 봄학기
전시간 훈련을 위한 메시지 개요

전체 주제: 믿는이들

메시지 42

그들의 현재—교회 안에서 생활하고 봉사함으로 신성한 삼일성의 신성한 분배를 단체적으로 누리

새 예루살렘을 살아 내고 이루어 냄

성경: 마 18:17-35, 벰전 2:25, 요 13:34-35, 눅 22:26-27, 계 2:7, 17, 3:20

I. 교회는 순전히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산물이다—창 2:21-24, 요 19:34, 엡 3:4-5, 5:32.

- A. 교회는 ‘그리스도에 속한’ 것이다—엡 5:30-32, 고후 2:10, 골 2:19, 3:10-11, 시 45.
- B. 교회는 ‘부활에 속한’ 것이다—창 18:10-15, 21:1-3, 6-7, 민 17:5, 요 11:25, 빌 3:10, 아 2:2, 8-9, 14, 고후 3:5-6, 4:7, 엡 2:6, 3:4, 5:32, 골 2:2-3, 벰전 1:3.
- C. 교회는 하늘에 속한 것이다—엡 1:3, 2:6, 5:27, 고전 15:45-47, 요 3:6, 갈 5:16, 25-26, 6:7-10.

II.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서 시편 132 편은 교회 생활을 계시하고, 시편 133 편은 신성한 삼일성의 분배를 누리기 위한 교회 생활을 계시한다.

- A. 시편 132 편은 교회 생활 안에서 이기는 이들의 상황을 묘사하는 일곱 항목—하나님과 안식함, 하나님과 함께 거함(14 절), 만족을 위한 양식(15 절), 영광스러운 옷(16 절), 승리의 뿔, 비추는 등(17 절), 빛나는 면류관(18 절) —을 언급한다.
- B. 시편 133 편은 하나 안에 함께 거하는 형제들이 있는 교회를 말한다. 아론의 머리와 옷은 머리와 몸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관유는 기름을 바르며 퍼지는 영을 의미하며, 혈문의 이슬은 그리스도의 내리며 적시는 이슬을 상징하고, 생명의 명해진 축복은 생명의 근원인 아버지를 상징한다.

III. 교회 안에서 생활하는 것은 새 예루살렘을 살아내는 것이다—계 2:7, 22:1-2 상, 14, 요 6:35, 57, 7:38-39, 벰후 1:4.

- A. 교회 안에서 생활하는 것은 매일 아침, “주님, 주님을 위해 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누리기 위해 다시 한번 주님께 헌신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다—빌 1:19, 3:3, 8-14, 4:4-7.
- B. 교회 안에서 생활하는 것은 그 영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귀를 가진,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추구하는 이가 되는 것이다—고전 2:9-16, 고후 5:14-15, 계 2:7.
- C. 교회 안에서 생활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라심으로 자라고 모든 일에서 머리이신 그리스도 안으로 자라는 것이다—골 2:19, 엡 4:15-16.
- D. 교회 안에서 생활하는 것은 우리가 은혜의 영적인 공급과 새롭게 하는 공급을 받기 위해 매일 주님을 숨쉬고 먹고 마시어, 이 은혜가 다른 사람들에게 분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요 20:22, 6:35, 57, 7:38-39, 엡 3:2, 벰전 4:10-11, 계 2:7, 22:1-2 상, 14, 사 55:1-2, 6-7.
- E. 교회 안에서 생활하는 것은 하나님을 보고, 받아들이고, 표현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로 조성되는 것이다—딤후 3:15-16, 딤후 2:15, 마 5:8.
- F. 교회 안에서 생활하는 것은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다—요 13:34-35, 요일 3:11, 14, 16-17, 4:8, 16.

- G. 교회 안에서 생활하는 것은 서로 용서하는 것이다—마 16:18, 18:17-35, 엠 4:32, 골 3:13.
- H. 교회 안에서 생활하는 것은 교회 안에 건축되는 것이다—엡 2:21-22, 3:16-19.
- I. 교회 안에서 사는 것은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집 안에서, 하나님의 집을 위해 그리스도의 목양을 받는 것이다—벧전 2:25, 시 23.

IV.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것은 새 예루살렘을 이루어 내는 것이다—고전 3:6-9, 12, 16-17, 빌 1:19-25, 계 21:18-21.

- A. 주님은 섬기는 분으로서 우리 가운데 계신다—막 10:45, 눅 22:26-27, 12:37.
- B.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것은 주님께게서 온 부담을 가지고 섬기는 것이다. 하나님께 열려 있는 영이 그분의 부담을 받기 위한 조건이다—마 5:3, 행 22:8, 10.
 1. 우리는 반드시 주님과 우리의 친밀한 교통 안에서 기도를 통해 부담을 받고 부담을 해방하기를 배워야 한다—눅 1:53, 시 27:4, 사 59:16.
 2. 기도와 일은 불가분의 것이다. 기도가 없으면 일도 없다—골 4:2, 램 33:2-3, 사 62:6-7, 행 6:4.
 3.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의 부담을 주시면 우리가 그 부담을 말해 내기를 원하신다. 부담은 말해 넘으로써만 해방된다—막 7:29, 히 5:7.
 4. 만약 우리가 우리의 집에서 큰 소리로 기도할 수 없다면, 주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의 부담을 말해 낼 수 있는 곳을 찾자. 우리는 비록 낮은 소리로 기도하더라도 들릴 수 있게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담이 말로 분명히 표현되기를 원하신다—막 1:35, 눅 6:12, 시 4:1, 5:1-3, 77:1, 102:1, 116:1, 142:1, 야 2:14.
 5. 신언자들이 받은 계시들은 그들이 받은 부담들이었다. 부담이 없이는 교회의 건축을 위한 말씀의 사역이나 신언이 없다—사 1:1, 2:1, 13:1, 15:1, 슥 12:1, 말 1:1, 행 6:4, 고전 14:4 하.
 6. 우리의 부담은 하나님의 계시를 사람에게 해방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을 통해 해방된다—2:11-16.
 7.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할 때 관심해야 할 것은 우리의 말의 주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려면 말씀을 공급하는 사람은 반드시 부담이 있어야 한다—말 2:7.
 8.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의 상태를 마음에 품고, 그들의 상태를 느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원하시는 바를 알아야 한다—출 28:29-30.
 9. 교회의 행정과 말씀의 사역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주님께게서 온 부담이 없는 것이다.
 10. 부담이 없다면 우리의 모든 활동은 죽을 것이고 효과가 없을 것이다. 부담이 있어야 우리는 살아 있고 번영할 것이다.
 11. 부담을 가질 때 우리는 가장 많이 처리된다. 부담이 있으면 자아가 감소되고 처리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어떤 것들을 하는 것을 우리의 부담이 허락지 않기 때문이며, 우리의 부담을 해방할 수 있으려면 우리의 존재가 처리될 것을 요구하는 분야들이 있기 때문이다.
 12. 우리가 부담을 갖고 봉사하지 않고 의무에 따라 봉사한다면 그러한 봉사는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임재를 잃게 할 것이다—참조 말 3:14, 신 4:25.
 13. 언제든지 우리의 봉사가 의무 이행이 될 때 우리의 봉사는 이미 타락한 것이다.
- C.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의 건축을 위해 영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으로 동역하며 봉사하는 것이다—롬 7:6, 빌 3:3, 겔 1:5-14, 행 1:14, 2:46, 4:24, 5:12, 15:25.
 1. 우리가 몸을 보았다는 가장 큰 표시는 독립적일 수 없다는 것이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 장 1 절에서 소스테네를 언급한 것은 그에게 몸의 의식이 있었고 동역의 영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2. 몸 안에서의 동역을 위해 우리에게 다른 사람이 필요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우리가 필요하다는 의식이 없기 때문에, 배우는 이의 영과 도움을 필요로 하는 영을 가진 사람이 우리 가운데 거의 없다—마 5:3.

3. 우리에게 서로가 필요하지 않다고 느끼고 교동이 필요하지 않다고 느끼는 것은 가장 큰 형태의 교만이다. 이것은 주님과 몸을 가장 모욕하는 것이다. 우리에게 다른 사람과의 동역이 부족하다면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을 비평할 것이다.
 4. 우리는 말씀을 전하고 교동하고 기도할 때 다른 사람들을 비평하지 말아야 한다. 특별히, 다른 사람들과 함께 기도할 때 우리는 반대되는 방식으로 기도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
 5.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들과 동역하고 협력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몫에 따라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의 몫을 존중해야 한다. 그것은 우리의 몫이나 다른 사람들의 몫이나 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기 때문이다. 각 사람은 겸손하여, 자기의 몫을 다른 사람의 몫보다 더 높이 여기지 말아야 한다—빌 2:3-4.
 6. 믿는이들은 파쇄되고, 다른 사람들과 조화되고, 다른 사람들의 기능을 존중하는 공과를 배워야 한다. 오직 이렇게 할 때에만 우리는 몸의 의식을 유지하고 우리 가운데서 건축을 산출할 수 있다.
 7. 우리 모두는 누가 메시지를 전하든지 한 혼이 되어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공급하고 부축해야 한다. 만약 주님을 섬기는 이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지 않고 계속 다투다면, 그것을 원수가 알고, 성도들이 알고, 심지어 자녀들까지도 알 것이다.
 8. 우리는 우리의 말이 다른 사람들의 말보다 높다는 인상을 성도들에게 주어서는 안 된다. 그보다는, 우리의 말이 다른 사람들의 말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인상을 성도들이 가질 수 있어야 한다.
 9. 한 형제가 말할 때 어떤 사람들은 비평하며 마음 속으로, “나는 이것을 이미 알고 있어.” 라고 말할지도 모른다. 이러한 종류의 영은 하나님의 일을 파괴하는 것이다.
 10. 봉사하는 사람들 가운데 건축이 부족한 이유는 그들에게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과 우리를 위한 그분의 기도는 서로 사랑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요 13:34-35, 15:12, 17.
 11. 봉사하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비범한 사랑이 있어야 한다. 서로에 대한 그러한 사랑은 우리와 주님의 하나에서 온다.
 12. 장로들과 동역자들은 서로 목양하고 서로 사랑하여 몸의 생활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21:15-17, 뱀전 1:22.
 13. 우리는 우리의 영을 사용하고 해방하여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함으로 함께 섞여야 한다—마 18:19, 행 1:14, 찬송가 614 장.
- D.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것은 의와 화평, 그리고 성령 안에 있는 기쁨이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이렇게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습니다.”—롬 14:17-18.
- E.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것은 신언하는 생활을 하여 흐르시는 삼일 하나님이 넘쳐 흐르게 함으로 교회를 건축하여 하나님의 충만인 교회가 조성되게 하기 위한 것이다—요 4:14 하, 7:38-39, 고전 14:4 하, 26, 엡 3:19.
- F.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것은 하나님을 따라 사람들을 목양하는 것이다—뱀전 5:1-6.
- G.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것은 즐거이 드리는 이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다—고후 9:7.
- V. 교회 안에서 생활하고 봉사하는 것은 생명나무요 감추인 만나요 잔치이신 그리스도를 먹음으로 하나님의 일곱 배로 강화된 영에 의해 교회의 하락을 이겨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을 완성하는 것이다—계 4:5, 5:6, 2:7, 17, 3:20-21, 슥 3:9-10, 4:6.